

‘크루즈 여행’ 자랑했다가 돈만 날린 가족



▲ 카니발 크루즈 여행을 취소당한 티파니 뱅크스. 사진=tiktok(thathippiedoc)

에서 가장 큰 객실인 엑셀 프레지던셜 스위트룸 약 1만5000달러를 내고 예약했다. 그런데 뱅크스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 갑자기 예약이 취소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당황한 뱅크스는 “나는 여행을 취소한 적이 없다” 며 업체 측에 항의했다. 이에 업체는 뱅크스의 예약 건이 온라인 시스템에서 돌연 취소됐으며, 뱅크스 가족이 묵기로 한 스위트룸은 이미 다른 사람이 예약해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업체는 또한 ‘여행 출발 15일 전 환불 불가’ 규정을 내세우며 이들에게 1만5000달러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뱅크스는 크루즈 측으로부터 여행이 취소된 전말을 듣게 됐다. 화근은 뱅크스의 남편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뱅크스의 남편은 휴가를 떠나기 몇 주 전 크루즈 예약번호가 담긴 사진을 올리며 자랑했고, 이 사진을 본 누군가가 예약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온라인으로 객실 예약을 취소한 것이었다. 업체 측은 “취소한 사람의 신원은 알 수 없다” 고 전했다.

미국의 한 가족이 SNS에 호화 크루즈 여행 계획을 자랑한 후 여행이 취소됐다.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티파니 뱅크스 부부는 네 명의 자녀들과 함께 호화 크루즈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이들은 일 년간 여행을 계획했으며, ‘카니발 크루즈 라인’

‘폭염 속 카트 정리’ 90세 퇴역 군인

한마트에서 카트 정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90세 퇴역 군인의 사연에 24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



▲ 마트에서 카트 정리 일을 하는 달린 매킨. 사진=whiskeyriff.com

90세 퇴역 공군 달린 매킨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소도시 메타리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를 하고 있다. 전직 지역 방송 뉴스 진행자인 캐런 스웬슨 론키요는 지난달 27일 메모리얼 데이에도 일하는 그의 모습을 목격했다.

체감온도가 섭씨 39도에 달한 폭염 속에 카트를 밀고 있는 매킨에게 론키요는 “메모리얼 데이에도 일하고 계시네요. 이유를 여쭙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이에 매킨은 “먹기 위해서요” 라는 짧게 대답했다. 이에 론키요는 온라인 모금사이트 ‘고펀드미’ (GoFundMe)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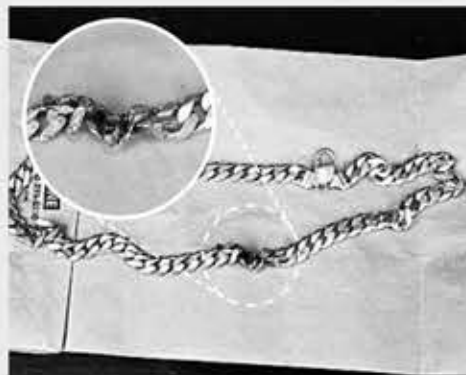
그의 은퇴를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론키요는 고펀드미에 매킨이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2500달러인데 사회보장연금으로 받는 돈이 1100달러에 불과하다며 “그는 나머지 금액을 벌기 위해 마트에 취직해 한꺼번에 20대가 넘는 카트를 밀고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를 지난다” 고 적었다.

고펀드미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지난 2일 기준 약 5600명이 모금에 참여해 총 24만 4천달러 이상이 모였다. 현재는 모금이 종료돼 참여할 수 없다.

매킨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론키요를 만난 게 행운이라며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은목걸이 안 했으면 어쩔 뻔



▲ 커머스시티 경찰국이 공개한 총알이 박힌 은목걸이. 사진=dailymail.co.uk

가까운 거리에서 목에 총을 맞은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 덕분에 목숨을 건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3일 CNN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콜로라도주 덴버 커머스시티에서 신원 미상의 두 남성간의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총격을 가했다. 목에 총을 맞은 다른 남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런데 목에 상처를 입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던 이 남성은 착용하고 있던 은목걸이 덕에 목숨을 건졌다. 확인 결과 총알은 10mm 폭의 목걸이에 그대로 박히며 치명적인 총상을 피한 것이다.

커머스시티 경찰국은 총알이 혈흔과 함께 목걸이에 그대로 박혀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총알이 혈흔이 묻은 목걸이에 박혀 있다. 혈흔은 총알이 목걸이에 박히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목에 난 상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커머스시티 경찰국은 “피해자가 22구경 총탄에 맞았으나 목걸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체포됐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 “이 목걸이는 순은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며 “은은 부드럽다” 고도 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체포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장원호 발 전문 병원

(발 및 발목 치료 족부 전문 병원)

Ryan Chang, DPM



Ryan Chang, DPM

분야

- 발 통증, 통풍, 평발, 발목 골절
- 관절염, 발가락 변형, 족저근막염
- 발 교정용 & 맞춤형 깔창 처방
- 당뇨관련 발치료, 무지외반증
- 스포츠 관련 발 & 발목 부상, 인대 손상
- 무좀, 내성발톱, 사마귀
- 발목 또는 발가락 기형 수술
- 소아족부질환, 소아 안짱다리 교정

— 발 관련 스포츠 부상 관리 및 수술 전문 —



레이저
Class IV Laser



최첨단
체외충격파

• 특별 진료 •

최첨단(체외충격파, 레이저)기기로 통증, 사마귀, 발톱무좀 치료

— 각종 보험 취급 —

PPO: United Health Care, Anthem, Cigna, Aetna, Blue Cross Blue Shield
HMO: Seoul Medical Group, Center IPA, Prospect (Daehan) Medical Group

T.949.484.4405

62 Corporate Park Suite #235, Irvine, CA 92606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